

[1957-02-05, 에버렛 스완슨이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오늘 한국에서 사진 등의 발송이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우편으로 10일 전에 발송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보육원의 원장님이 1월 20일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는 12월 1일부터 급성 간염을 앓았는데, 이것이 늦어진 이유였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었던 이약신(Lee Yak Shin) 목사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만난 목사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1951년에 그의 교회에서 설교했고, 1952년에 보육원을 방문했으며, 그 이후로 그를 매우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는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공산주의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과 집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진해(Chin Hae) 보육원은 이 목사님의 집에서 시작되어 현재 120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으며, 이 중 78명은 남자 어린이고, 42명은 여자 어린이입니다. 근처의 미국 공군 기지는 전쟁 기간 동안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약 3년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보냈지만, 이제는 지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몇 달 전 이 목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대가족을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다른 보육원과의 통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이사회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제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7월 주한미군은 사진의 뒤쪽에 보이는 남학생 기숙사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는 소녀들과 과부들을 위한 큰 건물도 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촬영 당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과 같이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가운데 안경을 쓴 외모가 좋은 남성은 목사님의 사위인 이봉은(Lee Pong Eun) 의학박사입니다. 그는 이 목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이며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두 장의 사진 외에 어린이 정보, 배송 방법 안내문 등을 동봉합니다. 실수로 선교사의 주소가 기재되었으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삽니다. 대한민국 진해의 진해 보육원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이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가끔은 소포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린이가 답장을 드릴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단체용으로 더 많은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사진의 필름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내와 신실한 지원 및 기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어린이들과 주님을 위하여,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제가 돈을 보내서 구매한 보육원의 사진과 편지가 오늘 같은 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이곳은 진정한 전도의 기회가 되어 불신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165명의 어린이가 있고, 그들 중 극히 일부 어린이만 후원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 명 더 후원할 수 있으시거나, 친척, 친구 또는 교회 그룹이 후원하도록 하실 수 있다면, 동봉된 봉투를 작성하여 제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긴급한 SOS입니다. 이 위대한 기회와 필요에 대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편 주소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진해, 진해보육원